



영국의 최근 노동시장 동향

최영준 (영국 비스대학교 조교수)

영국은 최근 미국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기사와 영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이 연일 방송과 신문에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¹⁾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 최근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새 예산은 매우 보수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기(long-term economic recession)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흐름 및 전망과는 달리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흐름은 아직은 건실하게 보인다.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최근 경제흐름에 따른 노동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지만, 최소한 외적으로는, 노동시장참여율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2007년에 이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²⁾ 이 글에서는 2008년에 3월에 발표된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통계청의 통계를 중심³⁾으로 현 영국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추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연령계층의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 이래로 점진적인 증가를

1) 자세한 내용은 www.telegraph.co.uk, www.guardian.co.uk, www.bbc.co.uk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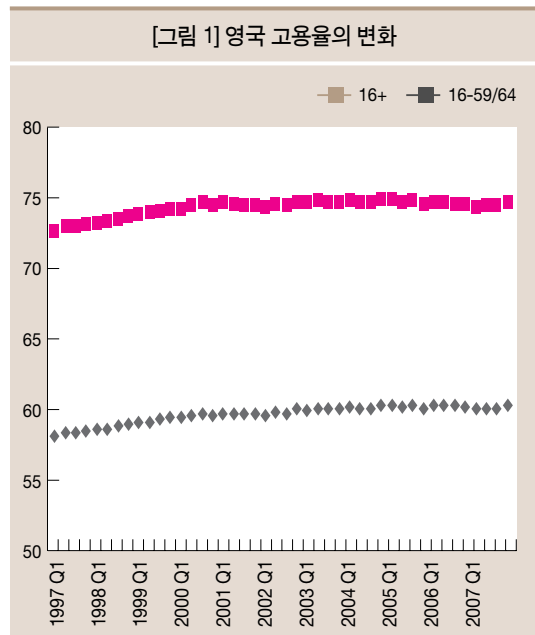
2) 예로, 3월의 실업 및 고용에 관한 BBC의 뉴스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7304330.stm> 와 1월의 실업 및 고용에 관한 BBC 뉴스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7304330.stm> 참조.

3) 참고문헌 참조.

보여 왔다(그림 1 참조). 최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고용률은 74.8%였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비교하여 0.3%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할 때 0.4%가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분기에 고용된 사람의 수는 29.5백만 명으로,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 분기에 비해 166,000명, 지난해에 비해 367,00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부터 49세 사이에 노동 시장에 참가한 사람의 수가 약 11백만 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50세부터 퇴직연령까지(남성 65세, 여성 60세)의 근로자수 역시 남성 3.9백만 명, 여성 2.6백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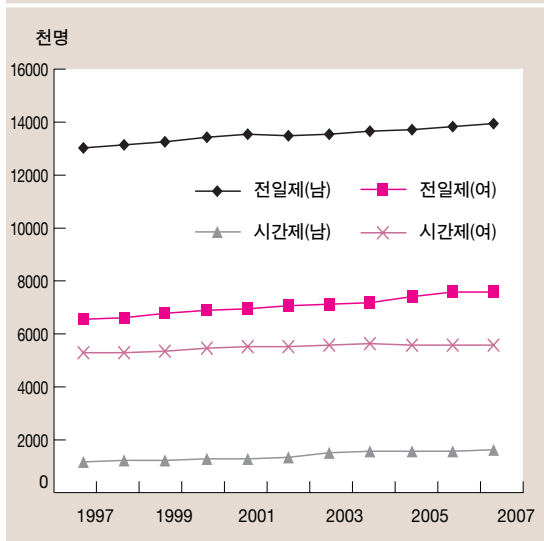
비록 전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일한 시간의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약 총 2.6백만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당 일한 시간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 의해서 일한 시간 수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남성의 경우 주당 평균 일하는 시간의 수가 36.5시간으로 지난 시기에 비해 0.3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여성의 경우 0.2시간이 줄어서 26.4시간을 매주 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당 일하는 평균 시간은 전체 31.9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37시간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0.2시간 줄어들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에, 두 번째 직업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는 0.3시간이 늘어 9.9시간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그 직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의 수는 11.3시간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일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을 비교하면, 예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우선 남성의 대부분이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으며, 남성 고용 중 약 10%가 넘는 수치가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비록 여성 전일제 고용이 서서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그림 2] 전일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의 변화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여성 고용 중 시간제의 비중이 약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중 전일제를 찾지 못해서 시간제 고용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997년 1분기에 12.8%(남성 25.7% 여성 9.8%)에서 2007년 4분기에는 9.9%(남성 16.7% 여성 7.8%)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요인까지 포함한 응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간제 응답이 자발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일제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자리 수는 2007년 12월에 약 31.6백만 개였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13,000개가,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208,000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1959년 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분기 동안 피고용인의 일자리는 26,000(0.1%)개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영업자 일자리 수 11,000(0.3%)개, 1,000개의 정부지원훈련생(2.7%) 그리고 1,000(0.4%)개의 군인직업의 감소에 일부분 상쇄된다. 지난 일 년을 비교하면, 피고용인의 일자리가 179,000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일자리는 41,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로 보면, 새 일자리 중 167,000개가 여성에 의해서, 그리고 41,000개가 남성에 의해 채워졌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최근 분기에 호텔 및 식당 등의 서비스업에 의한 일자리가 43,000개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일 년의 경우 보면 금융업계에 의한 일자리가 149,000개로 가장 많이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가 약 28,000개(0.1%)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제조업 일자리는 약 2.9백만여 개로 197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탈산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현재 공공부문이 약 5.8백만 개, 민간부문이 약 23.7백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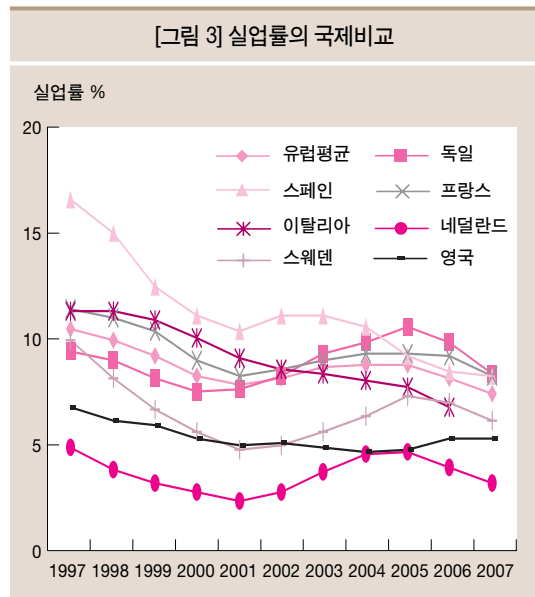
실업률은 1997년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2008년 1월까지 5.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0.1%, 지난해에 비해서 0.3%가 줄어든 수치이다. 여성 실업률은 4.8%로 전체 실업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성 실업률은 5.5%로 전 시기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실업자의 수는 약 1.6백만 명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32,000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89,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주요 원인은 16세와 17세 사이에서 실업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업을 한 지 6개월 미만의 사람들 내에서 실업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반면, 최근 400,000명이 넘는 일 년 이상의 장기실업

자의 증가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⁴⁾ [그림 3]은 실업률의 국제비교를 보여준다. 영국은 유럽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나 [그림 3]에 나오지 않은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실업률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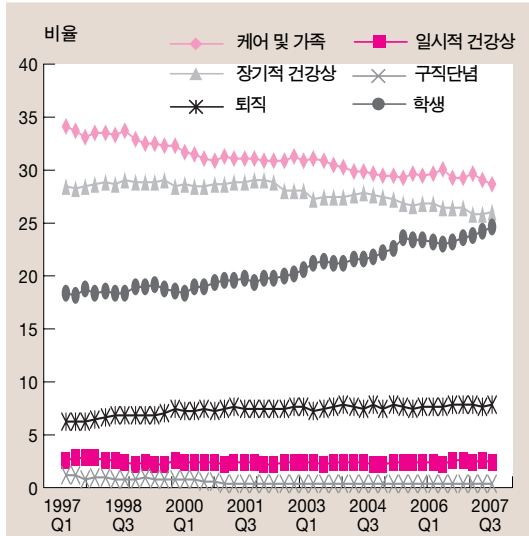
구직수당을 신청하는 사례의 수는 2008년 2월에 793,000명으로 지난달에 비해서 2,800사례, 그리고 전년에 비해 126,500사례가 줄어들었다. 이는 17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며, 1975년 6월 이래로 가장 낮은 사례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6개월 기준으로 볼 때 매달 약 9천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며, 지난 3개월 기준으로는 약 7천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 사례의 감소는 2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1,600사례의 감소, 여성의 경우 1,200사례의 감소에 기인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를 보이거나 북아일랜드, 웨일스, 북동지방, 그리고 요크셔 지방에서는 신청 사례의 증가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장기실업자와 50세 이상에서 신청사례 수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반면에 50세 이상 6개월 미만 실업자 내에서 신청 사례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근로연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8년 1월까지의 분기에서 21%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0.2%가, 지난해에 비해서 0.1%가 하락한 수치이다. 남성의 경우는 0.1%가 감소한 16.4%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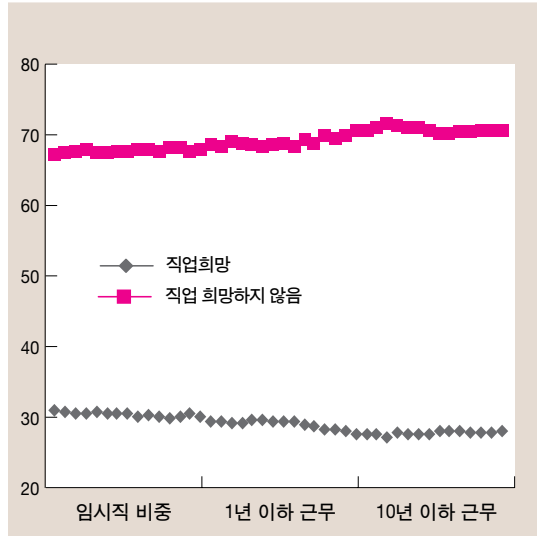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그림 4]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 이유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그림 5]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업 희망 여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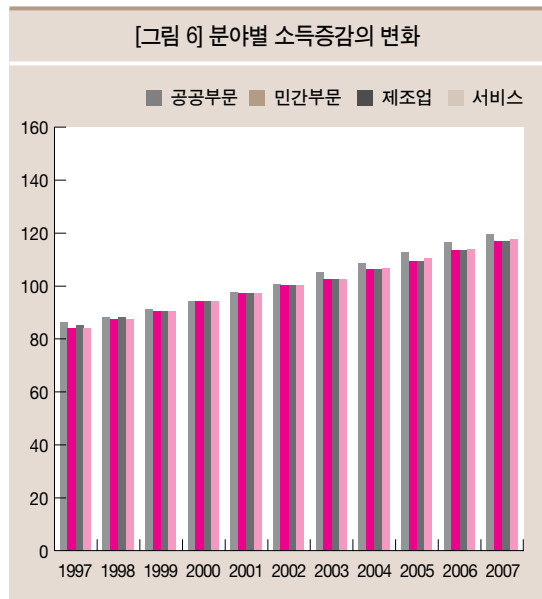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0.3%가 감소한 25.9%를 기록하였다. 50세부터 퇴직연령까지의 근로연령층 내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역대 가장 낮은 25.7%를 기록하였으며, 남성 24.2% 그리고 여성 27.8%를 기록하였다. 실제 수치로는 7.9백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2,000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의 수가 1.95백만 명(약 25%)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들 돌보거나 케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이 된 비율은 1997년 35%에서 2007년에는 역대 가장 낮은 28.6%까지 낮아졌다(2.24백만 명, 그림 4 참조). 또한, 장기적인 건강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조기퇴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 중 다시 직업을 찾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어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증가율(annual rate of growth in average eaming : AEI)은 보너스를 제외할 때 2008년 1월 기준 3.7%로 지난달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지만, 보너스를 포함할 때는 지난달에 비해서 0.1%가 하락한 수치이다. 이는 제조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공부문의 임금 증가에 일부분 상쇄되었다. 민간 서비스 분야의 경우 보너스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때 모두 임금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운송, 보관, 금융중계 부분의 임금이 줄어들어나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보너스를 포함할 경우 임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너스를 제외할 경우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보너스를 제외할 경우는 변화가 없으나, 보너스를 포함할 경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인 1997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민간 혹은 제조업/서비스업에 큰 관계없이 임금상승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자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빈 일자리 조사(Vacancy Survey)’에 따르면, 2008년 2월까지 지난 석 달 동안의 빈 일자리 수는 678,500개이었으며, 이는 이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을 비교했을 때 빈 일자리는 1,600개로 0.2% 증가하였으며, 일 년을 볼 때 59,700개로 약 9.6%가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역시 호텔·식당 등의 요식업계에서 증가율이 가장 빠른 반면, 운송이나 금융 등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당 정부 이후 영국의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지난 일 년 그리고 분기 동안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고용과 관련된 성과들이 뉴딜정책(New Deal)과 같은 노동당의 정책으로 인한 성과라기보다는 경제적 호황기에 힘 입은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침체가 2008년부터 예상되는 시점에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가 경제 주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정책들로 맞대응할 것인지, 또한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등은 지난 10년의 안정적 성장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들을 제시할 것을 판단된다. **KLI**

참고문헌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a), Time-Series Data: Labour Market Statistics. (2008년 3월에 접속)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b), Labour Market Statistics—First Release: March 2008. (2008년 3월에 접속)
-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c), Labour Market Trends.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Product.asp?vlnk=550> (2008년 3월에 접속)